

LG아트센터
2018년
기획공연 시즌
CoMPAS18



LG Arts Center
Contemporary Music &
Performing Arts
Season 2018

COM
PAS
18
LG Arts Center Contemporary
Music & Performing Arts
Season

LG아트센터
2018년 기획공연 시즌
CoMPAS18

2018.3.15—7.8

3.15^{thu} / 8pm

소프라노 다니엘 드 니스 &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
“모차르트에서 브로드웨이까지”

VIP 130,000 / R 100,000 / S 70,000 / A 40,000

3.22^{thu} / 8pm

아누쉬카 샹카 “Land of Gold”

R 100,000 / S 80,000 / A 60,000 / B 40,000

3.29^{thu} – 31^{sat} / weekdays 8pm, sat 3pm

마이클 키간-돌란 <백조의 호수>

R 80,000 / S 60,000 / A 40,000

4.1^{sun} / 7pm

리사 피셔 & 그랑 바통

R 90,000 / S 70,000 / A 50,000

4.6^{fri} – 8^{sun} / fri 8pm, weekend 5pm

세븐 핑거스 × 리퍼블릭 씨어터
<보스 드림즈>

R 80,000 / S 60,000 / A 40,000

4.17^{tue} / 8pm

막달레나 코제나 &
라 체트라 바로크 오케스트라
“위기의 여인들”

VIP 130,000 / R 100,000 / S 70,000 / A 40,000

4.26^{thu} – 5.5^{sat}

tue-fri 8pm, weekends 3pm

한태숙 연출 <엘렉트라>

R 55,000 / S 35,000

LG Arts Center
Contemporary Music &
Performing Arts
Season 2018

5.16^{wed} – 19^{sat} / weekdays 8pm, sat 3pm

로베르 르빠주 연출 <달의 저편>

R 80,000 / S 60,000 / A 40,000

5.23^{wed} – 27^{sun}

weekdays 8pm, weekend 2:30pm & 7pm

스코틀랜드 국립발레단 <헨젤과 그레텔>

VIP 130,000 / R 100,000 / S 80,000 /

A 60,000 / B 40,000

6.5^{tue} / 8pm

아르테미스 콰르텟

R 80,000 / S 60,000 / A 40,000

6.8^{fri} / 8pm

파벨 하스 콰르텟

R 80,000 / S 60,000 / A 40,000

6.14^{thu} – 17^{sun}

weekdays 8pm, sat 7pm, sun 3pm

토마스 오스터마이어 연출 <리처드 3세>

R 80,000 / S 60,000 / A 40,000

7.5^{thu} – 8^{sun}

weekdays 8pm, sat 2pm & 7pm, sun 3pm

서크 엘루아즈 <서커폴리스>

VIP 100,000 / R 80,000 / S 60,000 / A 40,000

LG Arts Center

LG를 대표하는 사회공헌사업인 LG아트센터는 비영리공익법인 LG연암문화재단이 LG그룹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공연장입니다. 2000년에 개관하여 우리 시대의 다양한 예술적 가치와 시도를 존중해 온 LG아트센터는 창의력과 열정을 자랑하는 예술가들과 그들의 예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객들이 만나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동시대를 살면서 우리 관객들이 놓쳐서는 안 될 세계 최고 수준의 작품들을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LG아트센터는 예술가들과 관객들 모두에게 놀라운 영감을 주고, 언제나 믿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공연장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The LG Arts Center was built by the global business group LG in 2000 with the objective of making cultural contributions to society by presenting important contemporary performing arts to the Korean audience. In pursuing this objective, LG Arts Center receives valuable resources in the form of financial subsidies from its parent the LG group to offset the operational losses incurred in the presentation of the arts. LG Arts Center strives to endorse diverse artistic values and expressions of our times to the Korean public, and aspires to become the premier performing arts venue for both our valued audiences and artists. We are committed to providing artistic inspirations and amazing viewing experiences for everyone. Our aim is to win their trusts and make LG Arts Center their most preferred presenter of performing arts in Korea.



LG아트센터 2018년 기획공연 CoMPAS18 시즌 프로그램

theatre

dance × theatre

circus × theatre

classical music

world & pop music

한태숙 연출 <엘렉트라>
"Electra" directed by
HAN Tae-sook
4.26(thu)-5.5(sat)

로베르 르빠주 연출 <달의 저편>
Robert Lepage & Ex Machina
"The Far Side of the Moon"
5.16(wed)-5.19(sat)

토마스 오스터마이어 연출
<리처드 3세>
Schaubühne Berlin
"Richard III" by
Thomas Ostermeier
6.14(thu)-6.17(sun)

마이클 키간-돌란 <백조의 호수>
"Swan Lake/Loch na hEala"
by Michael Keegan-Dolan
3.29(thu)-3.31(sat)

스코틀랜드 국립발레단
<헨젤과 그레텔>
Scottish Ballet
"Hansel and Gretel"
5.23(wed)-5.27(sun)

세븐 핑거스 x 리퍼블릭 씨어터
<보스 드림즈>
The 7 Fingers x
Theatre Republique
"Bosch Dreams"
4.6(fri)-4.8(sun)

서크 엘루아즈 <서커폴리스>
"Cirkopolis" by Cirque Éloize
7.5(thu)-7.8(sun)

소프라노 다니엘 드 니스 &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
"모차르트에서 브로드웨이까지"
Danielle de Niese & Lucerne Festival Strings
"From Mozart to Broadway"
3.15(thu)

막달레나 코제나 & 라 첼트라 바로크 오케스트라
"위기의 여인들"
Magdalena Kožená & La Cetra Barockorchester
"Women on the Verge of Nervous Breakdown"
4.17(tue)

아르테미스 콰르텟
Artemis Quartet
6.5(tue)

파벨 하스 콰르텟
Pavel Haas Quartet
6.8(fri)

아누쉬카 상카 "Land of Gold"
Anoushka Shankar
"Land of Gold"
3.22(thu)

리사 피셔 & 그랑 바통
Ms. Lisa Fischer & Grand Baton
4.1(sun)

패키지 티켓 오픈: 2018.1.4(목) 10am

Ticket sales for packaged programs will begin at
10am on Thursday, 4 Jan.

개별 공연 티켓 오픈: 2018.1.11(목) 10am

Ticket sales for each program will begin at
10am on Thursday, 11 Jan.

CoMPAS18 할인 안내

빨리 잡은 좌석이 보기도 좋다!

조기예매 할인

2018.1.11(목)~2.9(금)

- 2월 9일(금)까지 개별 공연 구매 시 15% 할인

4명 이상 뭉치면 1명은 무료, 뭉치면 싸다!

뭉싸 할인

2018.1.11(목)~각 공연별 선착순 마감까지

- 동일 공연의 동일 회차, 동일 등급 4매 이상 구매 시 25% 할인 (선착순 회당 100매)
- 해당공연: 한태숙 연출 <엘렉트라>, 스키텔랜드 국립발레단 <헨젤과 그레텔>, 서크 엘루아즈 <서커폴리스>

젊음을 누려라!

청년 할인

2018.1.11(목)~각 공연별 예매 마감까지

- 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본인 1매 할인
- VIP · R · S 20%, A · B 30% 할인
- 티켓 수령 시 '신분증' 현장 확인 (미지참 시 현장 차액 지불)

신한카드의 특별하고 품격 있는 문화 공연 제안
아트 컬렉션!

신한카드 아트 컬렉션 할인

2018.1.11(목)~각 공연별 선착순 마감까지

- '신한카드 아트 컬렉션' 공연을 '신한카드'로 결제 시 20% 할인 (공연별 선착순 200매)
- 해당공연(5편): <보스 드림즈>, <달의 저편>, <헨젤과 그레텔>, <리처드 3세>, <서커폴리스>

기획공연 상시 할인은 신한카드 뿐!

신한카드 10% 할인

2018.1.11(목)~각 공연별 예매 마감까지

- 모든 신한카드로 기획공연 예매 시 10% 상시 할인 제공

예술적 영감을 원하는 종사자를 위해

공연예술전문가 할인

2018.1.11(목)~각 공연별 예매 마감까지

- 공연예술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각 공연별 20~40% 할인 적용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MY LG아트센터' > '공연예술전문가 등록' 참조

CoMPAS18 패키지 안내

LG아트센터 기획공연은 패키지가 진리! CoMPAS18 패키지

개별 공연 티켓보다 일주일 먼저 예매하세요!

패키지 티켓 오픈: 2018.1.4(목) 10am

패키지 구매자를 위한 안내!

- 모든 패키지는 동일 좌석 등급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단, R석 패키지의 경우 VIP석으로 상향 선택 가능하며, A석이 없는 공연의 경우 패키지 구성 시 가장 낮은 등급으로 자동적용됩니다.)
- 각 패키지별 구매 가능 기간이 다르니 확인 바랍니다.
- 구입하신 패키지의 첫 공연 시작일부터는 취소 및 변경을 하실 수 없습니다. (단, 공연의 날짜 변경 가능)
- 구성 공연의 티켓 상황에 따라 패키지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 패키지를 구매하신 관객께는 '패키지 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구매 패키지 첫 공연일 증명)
- 패키지로 구매하신 공연 중 2매까지 '동행인 할인'을 적용 받아 동반인 좌석을 구입할 수 있으며 20% 할인이 제공됩니다. (1월 11일 10시 이후 예매 가능)

문의 및 예매

- LG아트센터 홈페이지 www.lgart.com (PC버전만 가능)
- 매표소 운영 시간:
평일 9am - 6pm (주말, 공휴일 휴무)
Tel. 02-2005-0114
E-mail. arts2005@lgart.com

취향대로 골라본다!

자유 패키지

2018년 모든 기획공연 중 원하는 공연의
동일 좌석등급 대상으로 구매 가능하며,
동일 공연의 중복 선택은 불가합니다.
(R석 패키지는 VIP석으로 상향 선택 가능)

* 각 공연별 관람 가능 연령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10편 이상 선택 시 - 40% 할인

예매 기간: 2018.3.30(금)까지

7편 이상 선택 시 - 25% 할인

예매 기간: 2018.4.25(수)까지

5편 이상 선택 시 - 15% 할인

예매 기간: 2018.5.22(화)까지

세븐 핑거스 ×
리퍼블릭 씨어터
<보스 드림즈>
The 7 Fingers × Republique
"Bosch Dreams"



연극, 무용, 서커스를 모두 즐겨라!

더블 패키지

예매 기간: 2018. 3. 28(수)까지

연극, 무용, 서커스 7편 모두 선택 시,
전 등급 40% 할인!

* 본 패키지에는 19세 이상 관람 공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29(목) - 31(토)

마이클 키간-돌란 <백조의 호수>

4. 6(금) - 8(일)

세븐 핑거스 x 리퍼블리크 씨어터 <보스 드림즈>

4. 26(목) - 5. 5(토)

한태숙 연출 <엘렉트라>

5. 16(수) - 19(토)

로베르 르빠주 연출 <달의 저편>

5. 23(수) - 27(일)

스코틀랜드 국립발레단 <헨젤과 그레텔>

6. 14(목) - 17(일)

토마스 오스터마이어 연출 <리처드 3세>

7. 5(목) - 8(일)

서크 엘루아즈 <서커폴리스>

VIP* + R 605,000 → **363,000**

R 555,000 → **333,000**

S 415,000 → **249,000**

A 295,000 → **177,000**

*VIP 해당 공연(2편): <헨젤과 그레텔>, <서커폴리스>

캐나다 출신 아티스트들의
놀라운 예술적 영감이 가득하다!

오! 캐나다 패키지

예매 기간: 2018. 4. 5(목)까지

캐나다 아티스트 세븐 핑거스, 로베르 르빠주,
서크 엘루아즈의 작품 3편 모두 선택 시,
전 등급 15% 할인과 함께 선착순 50분께 캐나다
대사관에서 제공하는 기념품 세트를 드립니다.

4. 6(금) - 8(일)

세븐 핑거스 x 리퍼블리크 씨어터 <보스 드림즈>

5. 16(수) - 19(토)

로베르 르빠주 연출 <달의 저편>

7. 5(목) - 8(일)

서크 엘루아즈 <서커폴리스>

VIP* + R 260,000 → **221,000**

R 240,000 → **204,000**

S 180,000 → **153,000**

A 120,000 → **102,000**

*VIP 해당 공연: <서커폴리스>

*후원: **Canada** 주한캐나다대사관



스코틀랜드 국립발레단
<헨젤과 그레텔>
Scottish Ballet
"Hansel and Gretel"

©Andy Ross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관객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클래식 패키지

예매 기간: 2018. 3. 14(수)까지

4편 모두 선택 시, 전 등급 25% 할인!

3. 15(목)

소프라노 다니엘 드 니스 &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

4. 17(화)

막달레나 코제나 & 라 체트라 바로코 오케스트라

6. 5(화)

아르테미스 콰르텟

6. 8(금)

파벨 하스 콰르텟

VIP* + R 420,000 → **315,000**

R 360,000 → **270,000**

S 260,000 → **195,000**

A 160,000 → **120,000**

*VIP 해당 공연(2편): 다니엘 드 니스, 막달레나 코제나

세계 최정상 현악4중주단을 동시에 만난다!

현악4중주 패키지

예매 기간: 2018. 6. 4(월)까지

아르테미스 콰르텟 & 파벨 하스 콰르텟 모두 선택 시,
전 등급 20% 할인!

6. 5(화)

아르테미스 콰르텟

6. 8(금)

파벨 하스 콰르텟

R 160,000 → **128,000**

S 120,000 → **96,000**

A 80,000 → **64,000**



아르테미스 콰르텟
Artemis Quartet

©Nikolaj Lund

“오페라계의 가장 쿨한 소프라노”

“Opera’s coolest soprano” The New York Times

소프라노 다니엘 드 니스 &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

“모차르트에서 브로드웨이까지”



© Chris Dunlop

3.15th
8pm

VIP 130,000 R 100,000
S 70,000 A 40,000

PROGRAM

모차르트 <돈 조바니> 중 “그 배신자를 피해요”, 로시니 <세비아의 이발사> 중 “방금 들린 그대의 음성”, 번스타인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중 “I feel pretty”, 뮤지컬 <Funny Girl> 중 “내 기분 망치지마” 등

Mozart: “Fuggi il traditor” from Don Giovanni
Rossini: “Una voce poco fa” from Barber of Seville
Bernstein: “I feel Pretty” from West Side Story
“Don’t rain on my parade” from musical Funny Girl

상기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Hailed by the New York Times as “Opera’s coolest soprano,” Danielle de Niese meets the Korean audience for the first time with a program titled “From Mozart to Broadway.” De Niese has captivated the hearts of opera fans around the world through her full palette of tonal colors, striking stage presence, and exotic allure. On her first stage in Korea, she is set to prove her worldwide recognition by performing together with the Lucerne Festival Strings which has established supreme artistic partnership with world renowned soloists such as Anne Sophie Mutter or Daniil Trifonov. They’ll give a variety of scores stretching from Mozart’s arias to famous Broadway musical numbers including works of the late Leonard Bernstein.

“바비칸센터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든 다니엘 드 니스. 그 무엇보다도 그녀는 진정 훌륭한 가수다.”

“Danielle de Niese, brings the house down at the Barbican ... she really is a fine singer, first and foremost.” The Telegraph

Danielle de Niese & Lucerne Festival Strings

“From Mozart to Broadway”



© Tomasz Trzebiatowski

전세계 오페라 무대를 종횡무진 누비고 있는 다니엘 드 니스가 처음으로 내한하여 모차르트 아리아에서부터 브로드웨이 뮤지컬 넘버까지 소화하는 화려한 무대를 선보인다. 스리랑카 및 네덜란드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호주 출신의 드 니스는 어려서부터 빼어난 노래와 연기, 춤 솜씨로 타고난 ‘무대 체질’을 뽐내며 일찌감치 주목 받았다. 그녀는 8세에 윌트니 휴스턴의 노래로 호주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최연소 우승자가 되었으며, 11세에 TV쇼 호스트로 에미상을 수상하고 15세에 오페라 무대에 데뷔하였으며 불과 18세에 뮤지컬 <레 미제라블>(브로드웨이)과 뉴욕 메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조너선 밀러 연출)에 섭외될 만큼 빠르게 이름을 알렸다.

은빛 목소리로 시시각각 변모하는 컬러풀한 음색과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 이국적인 외모로 관객들을 사로잡는 드 니스는 2005년 영국 글라인드본 오페라 페스티벌이 제작한 윌리엄 크리스티 지휘, 데이비드 맥비카 연출의 특급 화제작 <줄리오 체사레>에서 ‘클레오파트라’ 역을 맡아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스타 반열에 올라섰다. 이후 그녀는 주요 오페라 무대에서 러브콜을 받음은 물론 데카(Decca) 레이블을 통해 독집 음반을 발매하고 TV 다큐멘터리와 영화에 출연하는 등 다방면에서 승승장구하며 ‘디지털 시대 소프라노’로 각광받고 있다.

다니엘 드 니스의 첫 내한무대는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과 함께 그녀가 가진 매력으로 화사하게 꾸며진다. 그녀의 장기간 모차르트 아리아에서부터 2018년에 탄생 100주년을 맞는 레너드 번스타인의 뮤지컬을 비롯한 유명 브로드웨이 뮤지컬 넘버들까지, 그녀의 곡들은 새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을 긍정 에너지로 채워줄 것이다.

R 100,000
S 80,000
A 60,000
B 40,000

FEATURING

아누쉬카 샹카(Anoushka Shankar, Sitar)
마누 드라고(Manu Delago, Hang & Electronic Drums)
산지브 샹카(Sanjeev Shankar, Shehnai)
톰 파머(Tom Farmer, Double Bass & Keyboards)

3.22^{thu}
8pm

아누쉬카 샹카 “Land of Gold”

Anoushka Shankar “Land of Gold”

“시간과 국경을 가로지르는 음악의 움직임”

“Movement of music across nations and time” NPR

An innovative sitar player and composer in her own right, who is also the daughter of the sitar legend Ravi Shankar, Anoushka Shankar will perform for the first time in Korea. She was the youngest-ever and the first ever female artist from India to be nominated for a Grammy Award in 2003. The performance at LG Arts Center will mainly include songs from her latest album “Land of Gold” and embodying Shankar’s underlying message of hope, yearning for human dignity and love for mankind. The mystic sound of the sitar accompanied by percussion, bass, and Shehnai, will guide you to a richly rewarding state of peace.

월드 뮤직의 아이콘이 된 위대한 시타르 연주자

인도 정통 음악에 단단히 뿌리를 내린 채,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월드 뮤직의 지평을 끝없이 확대시켜 온 세계적인 뮤지션 아누쉬카 샹카. 지난 20년 간 전통과 혁신 사이에서 끝없이 진화해 온 그녀의 음악 세계를 처음으로 마주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펼쳐진다.

그녀는 일곱 살 때부터 아버지이자 전설적인 시타르 연주자 라비 샹카(Ravi Shankar)에게 음악과 시타르 연주를 배웠다. 1998년 앨범 <Anoushka>를 발표하며 솔로 활동을 시작했고, 2003년 발표한 라이브 앨범 <Live at Carnegie Hall>로 그래미 어워드 월드뮤직 부문 역대 최연소이자 인도 여성 최초의 노미네이션 기록을 세웠다. 2013년 도이치 그라모폰(DG)을 통해 발표한 앨범 <Trace of You>는 빌보드 월드 뮤직 차트 1위를 차지하였는데, 이 앨범에 그녀의 이복 자매인 노라 존스(Norah Jones)가 참여하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녀는 또한 조지 해리슨을 비롯하여, 에릭 클랩튼, 스티브 니콜스, 필립 글래스, 조슈아 벨, 주빈 메타, 크리스티안 예르비 등 세계적인 연주자 및 지휘자들과 합동 무대를 선보이며 월드 뮤직의 대중화에 기여해왔다.

이번 공연은 그녀의 최신 앨범 <Land of Gold> (2016)를 중심으로 꾸며진다. 이 앨범은 누구나 꿈꾸는 평화롭고 안전한 곳, 그 황금의 나라로 떠나는 여행이자, 전쟁과 피난으로 파괴된 인간의 존엄성과 인류애를 찾고자 소망하는 아누쉬카의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신비로운 시타르 연주 위에 퍼커션과 베이스 그리고 태평소와 비슷한 인도의 정통악기 쉐나이(Shehnai) 소리가 함께 어우러져 몽환적이면서도 파워풀한 음악을 들려줄 아누쉬카와 그의 밴드는 시간과 공간의 간극을 뛰어넘어, 때로는 기분 좋은 평화로, 때로는 삶이 주는 순수한 기쁨 속으로 당신을 인도할 것이다.

© Jamie-James Medina

“아누쉬카는 전 세계에 자신만의 인장을 찍고 있다.”

“She’s making her own unique mark on the world.” Harper’s Bazaar

R 80,000
S 60,000
A 40,000

소요 시간: 75분 (휴식 없음)
Duration: 75minutes (no interval)
관람 연령: 16세 이상
Age Guideline: 16+

영어로 공연되며, 한국어 자막이 제공됩니다.
Performed in English with Korean subtitles.

3.29 thu-
3.31 sat
weekdays 8pm
sat 3pm

Ireland's most celebrated director and choreographer Michael Keegan-Dolan will present his first stage in Korea with "Swan Lake", a contemporary reinvention of the Tchaikovsky ballet with the same title. Performed by 13 multifaceted artists including the famous actor Mikel Murfi, this production is interwoven with storytelling, song, theatre, dance and live music. Tchaikovsky's score has been replaced by the mesmerizing tunes of Ireland, performed live by the Dublin-based band Slow Moving Cloud. It will be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an unforgettably powerful and breathtakingly beautiful piece of art.



Supported by
Culture Ireland
Cultúr Éireann

마이클 키간-돌란 〈백조의 호수〉

“Swan Lake/
Loch na hEala”
by Michael
Keegan-Dolan &
Teac Daímsa



하얀색 발레 튀튀도, 공주도, 왕자도, 차이콥스키도 없지만 분명 원작보다 더한 감동과 잊혀지지 않는 아름다운 이미지, 독특한 미장센으로 가득한 〈백조의 호수〉가 온다! 영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지의 언론으로부터 엄청난 찬사를 받으며 가는 곳마다 매진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백조의 호수〉는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안무가 겸 연출가 마이클 키간-돌란이 아일랜드의 유명 영화배우 마이클 머피를 비롯하여 배우, 무용수, 밴드까지 13명의 전방위 예술가들과 함께 만든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무용극으로, 현대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드라마와 춤, 라이브 연주가 눈부시게 결합된 작품이다.

현대판 〈백조의 호수〉에서 주인공은 마법에 걸린 공주를 구하는 지크프리트 왕자가 아닌 서른 여섯 살의 우울한 실업자 지미이다. 그리고 마을의 다중인격자인 카톨릭 신부는 원작의 악마 로트바르트 역할을 맡아 저주를 걸어 소녀들을 백조로 만든다. 노르웨이와

아일랜드 음악을 베이스로 하는 밴드 '슬로우 무빙 클라우드(Slow Moving Clouds)'의 라이브 연주는 아름답고 중독성 강한 아일랜드 선율로 차이콥스키 음악을 대신한다. 정신질환과 사회적 고립, 음흉한 정치인들 그리고 부패한 성직자로 가득 찬 세상은 동화와 같은 원작보다 더 가혹하고 생생하여 오히려 마음에 와 닿는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원작이 가진 마법은 결코 손상되지 않고 오히려 배가된다.

서정적이면서도 원초적인 아름다움과 유머,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과 은유 그리고 세련된 미장센으로 가득한 〈백조의 호수〉는 시청각적으로 놀라울 뿐 아니라 신랄한 풍자와 명료한 이야기가 주는 현대성까지 모든 것이 완벽히 조화롭고, 숨막히게 아름다운 작품이다.

“지독히도 아름답고 비범한 작품” ★★★★★

“It’s a show of terrible beauty and extraordinary craft.” The Guardian

“거칠고 야생적이면서도 구원의 장엄함과 활력과 힘이 넘치는 작품이다.” ★★★★★

“Swan Lake/Loch na hEala is raw, raucous, redemptive, majestic, vital and empowering.” The Irish Times

Vocalist Ms. Lisa Fischer has been singing back-up for the past 30 years, illuminating the stages of world-class pop musicians, including the Rolling Stones, Tina Turner, Sting, Beyoncé, and Alicia Keys. In 1992, she won the Grammy Awards for Best R&B Vocal Performance with her hit single “How Can I Ease the Pain.” She also appeared in the film “20 Feet from Stardom” where she was brought back to spotlight, adding her name on to the list of world’s top singers. She will finally stand center stage, performing her own music together with the trio band Grand Baton led by JC Maillard in pursuit of a new world music by extending musical vocabularies.

R 90,000
S 70,000
A 50,000

FEATURING

리사 피셔(Lisa Fischer, Vocal)
JC 마이야르(JC Maillard, Guitars & Keyboards)
띠에리 알피노(Thierry Arpino, Drums)
에이든 캐롤(Aidan Carroll, Bass)

4.1^{sun}
7pm

POP MUSIC

리사 피셔 & 그랑 바통

Ms. Lisa Fischer & Grand Baton

“리사 피셔의 공연은 지난 수년간 버드랜드 클럽에서 본 최고의 공연이었다.”

“The single best show I’ve seen in the many years
I’ve visited Birdland.” The New York Times

전설의 백보컬, 무대 중심으로 나온다

비록 그녀의 이름이 낯설지라도 그녀의 목소리는 늘 우리 곁에 있었다. 리사 피셔는 롤링 스톤즈, 루더 밴드로스, 티나 터너, 스팅, 비욘세 등 세계적인 스타들의 공연과 앨범에서 그들의 무대를 빛내주는 백보컬로 30여년간 활동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던 그녀가 드디어 무대 중심으로 나와 온전히 자신의 목소리로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4옥타브를 넘나드는 음역대와 폭발적인 성량을 보유한 리사 피셔는 세계적인 팝 뮤지션들이 가장 선호하는 백보컬로 손꼽힌다. 특히, 1989년부터 참여한 전설적인 록 밴드 ‘롤링 스톤스’의 공연에서 믹 재거와 함께 부르는 “Gimme Shelter”는 롤링 스톤스 콘서트의 백미로 알려져 있다.

이후 리사 피셔가 주목 받았던 순간이 한 번 더 있었는데, 1992년 발표한 솔로 앨범 <So Intense> 중 “How Can I Ease the Pain”이 크게 사랑 받으며 그래미 어워드 ‘최우수 여성 R&B 퍼포먼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둔 것이다. 하지만 음반사의 소극적인 지원 속에 두 번째 앨범은 좌초되었고, 그녀는 다시 백보컬로 돌아가야 했다. 그러던 중, 피셔를 비롯한 백보컬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스타로부터 스무 발자국>(2013)이 세계적인 화제를 모으며 다시 한번 그녀가 무대 중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2014년부터 리사 피셔는 트리오 밴드 ‘그랑 바통(Grand Baton)’과 함께 본격적인 투어를 시작해서 재즈 스탠더드, 소울, 가스펠부터 록까지 다양한 넘버들을 자신만의 버전으로 노래하고 있다. “난 스타가 되고 싶지 않아요. 단지 노래하는 게 좋았을 뿐”이라고 말하는 리사 피셔. 긴 시간 동안 깎고 다듬어진 그녀의 내면의 노래가 마침내 시작된다.

“만약 탁월함이 음악 장르라면, 리사 피셔가 그 여왕일 것이다.”

“If transcendence were a musical genre,
Lisa Fischer would be its Queen.” Pop Matters

“꿈 같은 광경과 감각적인 움직임. 꼭 보아야 하는 공연”

“Dreaming sights and sensual movements. And must go see.” Teater 1

세븐 핑거스 × 리퍼블릭 씨어터 〈보스 드림즈〉

The 7 Fingers × Theatre Republique “Bosch Dreams”

4.6 fri-

4.8 sun

fri 8pm
weekend 5pm

R 80,000
S 60,000
A 40,000

소요 시간: 85분 (휴식 없음)
Duration: 85minutes (no interval)
관람 연령: 14세 이상
Age Guideline: 14+

영어로 공연되며, 한국어 자막이 제공됩니다.
Performed in English with Korean subtitles.

This contemporary circus show takes you on a fantastic journey through surreal imagery that delves into the 15th century Dutch painter Hieronymus Bosch's fabulous and saturated universe. “Bosch Dreams” pays homage to Bosch and the surrealist movement he inspired. Pictures come to life right in front of you as the amazing acrobatic artists from The 7 Fingers unleash their playfulness across a fascinating 3-dimensional canvas of projected videos. The magic-realist video projections encompass everything that characterizes both Bosch and the surrealist movement. The show's grand format will lead you through a fantastical universe that includes tales of Bosch's life as well as revelations of his truly unique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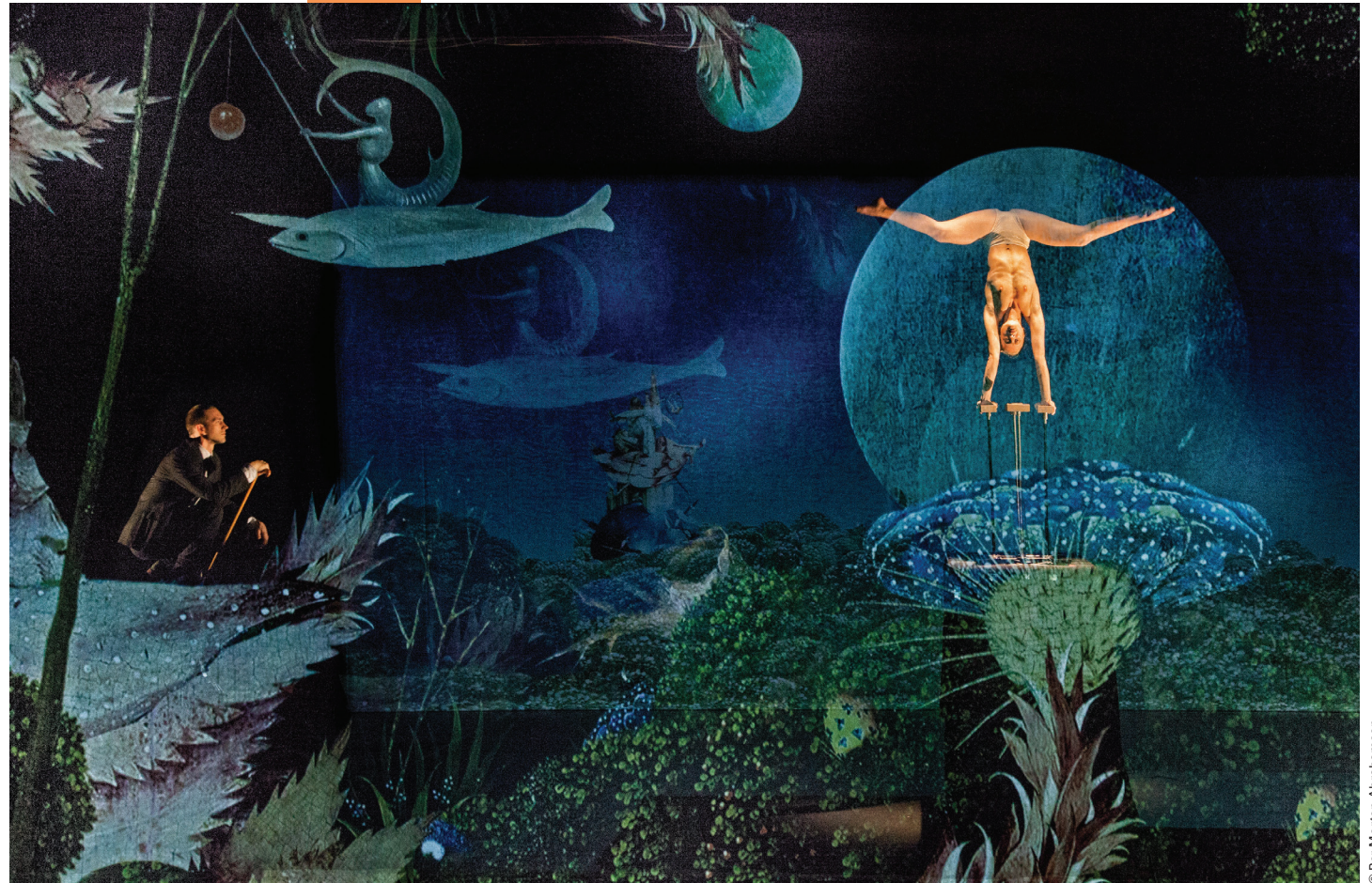
신비주의 화가, 보스의 꿈을 향해하는 여행

미술사상 가장 신비로운 인물 중 한 명인 15세기 네덜란드의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스(Hieronymus Bosch). 중세시대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색채와 기괴한 그림체로 천국과 지옥, 인간의 욕망과 타락 등 뛰어난 상상의 세계를 표현하여 수세기 이후 20세기 초현실주의 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알려진 그의 그림들이 환상적인 입체영상과 아름다운 아크로바틱을 통해 생생하게 살아 난다.

공연은 보스가 죽음에 가까워진 15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까스로 잠이 든 보스의 모습은 곧이어 500년 후 어느 강의실로 변한다. 보스에 대한 연구로 평생을 바친 한 열정적인 교수의 강의는 보스의 걸작 <쾌락의 정원>을 커다란 스크린에 투사하며 오늘날까지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작품의 상징성과 의미를 반문한다. 이윽고 <건초수레>, <일곱 가지 죄악과 사말> 등 보스의 주요작들이 이미지로부터 해방되어 애니메이션과 아크로바틱으로 변해가며

“서커스와 그림의 성공적인 결합”

“The successful marriage between circus and painting!” France 3



© Per Morten Abrahamsen

화가의 삶과 작품 속에 숨겨진 에피소드들을 무대 위에 펼쳐놓는다. 현실과 꿈, 과거와 현재, 역사와 미래를 뛰어넘으며 이 불멸의 신비주의 화가의 세계를 향해하는 초현실적인 시간 여행은 살바도르 달리, ‘더 도어스’의 짐 모리슨과 같은 현대 예술가들의 등장으로 더욱 흥미로워진다.

서커스와 연극, 애니메이션이 절묘하게 융합된 <보스 드림즈>는 캐나다 뉴 서커스의 계보를 잇는 세븐 핑거스와 2016년 타이거 릴리스의 <햄릿>으로 내한한 바 있는 덴마크 리퍼블릭 씨어터가 보스 서거 500주년을 기념하며 공동 제작한 작품이다. 위대한 화가 보스의 걸작을 감상하는 황홀함을 뛰어넘어 그가 그려낸 상상력과 독창성 가득한 초현실적인 세계를 여행하는 즐거움을 만끽해 보자.

VIP 130,000 R 100,000
S 70,000 A 40,000

PROGRAM

“위기의 여인들”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 <전쟁과 사랑의 마드리갈>
(제8권) 중 “탄크레디와 클로린다의 싸움” 외

“Women on the Verge of Nervous Breakdown”
Monteverdi’s “Il Combattimento di Tancredi e
Clorinda” from Madrigali guerrieri ed amorosi, etc.

상기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4.17 tue
8pm



© Esther Hasse

One of the world’s top mezzo-sopranos Magdalena Kožená returns to Korea in 5 years with the Italian baroque maestro Andrea Marcon and his baroque ensemble La Cetra Barockorchester. The concert will be held under the theme of “Women on the verge of nervous breakdown,” in which she will be singing the songs of women agonized by the pains and betrayal of love. Most notably, Kožená will sing all three roles in ‘Il Combattimento di Tancredi e Clorinda’ from Monteverdi’s “Madrigali Guerrieri et Amorosi,” boasting her rich spectrum of expressions.

막달레나 코제나 & 라 체트라 바로크 오케스트라

지휘. 안드레아 마르콘

“마음에 꽃히는 목소리”

“Kožená has one of those voices that seem to go straight to the heart.” Gramophone

안네 소피 폰 오터, 체칠리아 바르톨리와 더불어 현존하는 세계 최정상급의 메조 소프라노로 손꼽히는 막달레나 코제나가 5년만에 한국을 찾는다. 이번에는 특히 이탈리아의 바로크 음악 거장 안드레아 마르콘 (Andrea Marcon)과 그가 이끄는 바로크 앙상블 ‘라 체트라(La Cetra)’와 함께 내한한다.

도이치 그라모폰(DG)의 대표적인 성악가로 오페라와 콘서트 무대에서 두루 찬사를 받아온 코제나는 민코프스키, 가디너, 아르농쿠르 등과 작업하며 바로크 음악에 대한 뛰어난 해석과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위기의 여인들”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꾸며지는 이번 공연에서는 2016년 라 체트라와 발매한 음반 <몬테베르디>의 수록곡을 중심으로 사랑이 주는 고통과 배신, 절망과 슬픔으로 괴로워하는 여인들을 표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몬테베르디의 걸작 마드리갈 중 하나인 <전쟁과 사랑의 마드리갈>(제8권)에서 사랑하는 연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비극적 이야기를 다룬 “탄크레디와 클로린다의 싸움”이다. “코제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은 집약체”(Fanfare)라 호평받은 ‘세미 씨어터’ 형식의 이 곡에서 코제나는 전투사의 복장으로 나타나 탄크레디와 클로린다 그리고 해설자까지 1인 3역을 모두 소화하며 노래와 연기를 펼친다. 이 외에도 <포페아의 대관> 중 ‘옥타비아’의 아리아, 극적인 상상력을 요하는 루치아노 베리오의 “세쿠엔차 3번” 그리고 몬테베르디의 “아리안나의 탄식”을 개작한 현대곡 “아리안나가 이상해”까지, 코제나는 시대를 초월한 드라마틱한 캐릭터들을 그녀만의 폭넓은 표현력으로 강렬하게 보여줄 것이다.

우첼리니, 마리니 등 몬테베르디 당대 작곡가들의 기악곡이 활기차게 곁들여질 이번 공연은 거칠고 맹렬한 여인에서부터 상차받아 애달픈 여인의 모습까지 자유롭게 오가며 캐릭터 하나하나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우리 시대 디바의 음악적 지성과 열정을 한껏 만끽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 Martin-Chiang

Magdalena Kožená & La Cetra Barockorchester

Conducted by Andrea Marcon

“음악적 지성과 아름다운 목소리가 결합된 코제나의 프로젝트는 언제나 매혹적이다.”

“With her combination of musical intelligence and vocal beauty, Kožená’s projects are always fascinating.” The Opera News

“한태숙, 심리극의 장인”
Newsis, <1984> 리뷰 중

“연출가 한태숙은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동시대성을 탈환했다.”
Newstage, <유리동물원> 리뷰 중

한태숙 연출 신작 〈엘렉트라〉

“Electra”
directed by
HAN Tae-sook

4.26^{thu-}
5.5^{sat}
tue-fri 8pm
weekends 3pm

THEATRE

R 55,000
S 35,000

원작: 소포클레스
각색: 고연옥
연출: 한태숙
출연: 장영남, 서이숙, 박완규, 백성철, 박수진, 예수정,
이남희, 박종태, 민경은, 류용수, 김원종

관람 연령: 14세 이상
Age Guideline: 14+

공연시간 및 자세한 정보는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One of Korea's most acclaimed theatre directors, HAN Tae-sook will present her newest creation “Electra.” HAN has gripped the audience through her refined stage aesthetics, bringing to the stage such classic plays as “The Lady Macbeth”, “Richard III”, “Oedipus Rex”, “Antigone,” modern plays including “A Death of Salesman”, “The Glass Menagerie”, as well as classic literature like “La Divina Commedia”, and “1945.” Recently she leaped beyond the realm of theatre by directing a Changgeuk, Korean traditional opera. She is conceiving to stage “Electra” as a contemporary music theatre.

인간의 내밀한 심리를 집요하고 섬세하게 포착해내며 자신만의 독자적인 미학을 구축해 온 우리 시대의 중요한 연출가 한태숙. 그는 <오이디푸스>, <안티고네>와 같은 희랍 비극에서부터 <맥베스>, <리처드 3세>, <세일즈맨의 죽음>, <유리동물원> 등 영미 희곡의 정수와도 같은 작품들 그리고 <단테의 신곡>, <1984>와 같이 철학적 주제를 다루는 문학 작품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작품 세계를 보여왔다. 인간 본성을 꿰뚫는 심리 묘사와 분명한 캐릭터 구축, 상징적인 무대로 연극적 긴장감과 재미는 물론 주제적 본질을 놓치지 않는 연출력으로 작품마다 명성과 신뢰를 입증해 왔던 한태숙 연출이 2006년 <이아고와 오셀로> 이후 12년 만에 LG아트센터 무대에서 신작을 선보인다.

한태숙 연출이 선택한 작품은 대표적인 희랍 비극 중 하나인 <엘렉트라>. 소포클레스 비극 3부작의 완결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엘렉트라>는 아버지 아가멤논을 살해한 어머니 클리타임네스트라에 대한 복수로 동생 오레스테스를 시켜 어머니와 정부

아이기스토스를 죽이는 엘렉트라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룬다. 소포클레스와 동시대를 살았던 아이스킬로스나 에우리피데스 같은 고대 극작가뿐 아니라 유진 오닐과 같은 현대의 극작가들의 손에 의해 다시 쓰여졌고, 수많은 영화와 오페라로 만들어질 정도로 많은 예술가들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주고 있는 <엘렉트라>는 인류의 수 천년 역사와 함께 해온 화두, ‘과연 복수는 정당한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관객들에게 던진다.

특히 이번 <엘렉트라>에서는 “범죄극의 연금술사” (동아일보)로 불리는 고연옥 작가가 각색을 맡아 병커를 배경으로 게릴라 여전사로 변한 엘렉트라의 복수극을 긴장감 있게 변주할 예정이다. 또한 작품에서 갈등의 두 축을 담당하는 엘렉트라와 클리타임네스트라 역은 오랜만에 연극 무대로 돌아오는 배우 장영남과 서이숙이 맡아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며, 비극과 희극을 넘나들며 단단하게 캐릭터를 구축해온 배우 박완규 등 연기파 배우들이 가세하여 작품의 깊이와 기대를 더해줄 것이다.



R 80,000
S 60,000
A 40,000

소요 시간: 135분 (휴식 없음)

Duration: 135minutes (no interval)

관람 연령: 14세 이상

Age Guideline: 14+

영어로 공연되며, 한국어 자막이 제공됩니다.
 Performed in English with Korean subtitles.

약물이나 성과 관련된 표현이 일부 담겨있으며,
 스트로브 조명을 사용하오니 참고바랍니다.
 Contains drug references, sexual references and
 strobe effects.

The greatest and most acclaimed work by the iconic Canadian creator, Robert Lepage, presented in 45 cities around the world, comes back to Korea after 15 years. Premiered in 2000, and performed at the LG Arts Center in 2003, "The Far Side of the Moon" tells the story of two estranged brothers brought together by their mother's death. Phillippe, an introvert philosopher, looking to the stars for meaning in the universe; and his successful brother, Andre, who takes a much more pragmatic view on interplanetary mysteries. Drawing parallels between their fraternal bitterness and the competition between the Soviets and Americans during the space race, Phillippe and Andre's childhood memories act as touchstones for this beautiful and quirky one-man show in a witty exploration of one of the great mysteries of our time.

THEATRE

5.16 wed
 5.19 sat
 weekdays 8pm
 sat 3pm

로베르 르빠주 연출 <달의 저편>

Robert Lepage &
 Ex Machina
 "The Far Side of
 the Moon"

"예측할 수 없는 연결로 이야기를 전개시키며 마음과 정신을 동시에 울리는
 이 작품이야말로 르빠주의 최고를 보여준다."

2003년 <달의 저편>을 시작으로 2007년 <안데르센 프로젝트>, 2015년 <바늘과 아편>에 이르기까지 차원이 전혀 다른 극적 상상의 세계를 펼쳐 보이며 경이로움을 선사했던 연출가 로베르 르빠주. 그가 자신을 처음으로 한국에 알린 작품이자 놀라운 천재성을 담아낸 작품 <달의 저편>을 15년 만에 다시 선보인다. 이제는 현대 연극에 혁신을 불러일으킨 거장 중 하나로 주저 없이 첫 손에 꼽힐 만한 연출가이기에 그를 뒤늦게 발견하거나 미처 접하지 못한 작품에 대해 많은 아쉬움과 궁금증을 갖고 있던 이들이라면 <달의 저편> 재공연이 반가운 소식으로 여겨질 것이다.

새로운 밀레니엄이 열렸던 2000년에 초연되어 21세기의 연극적 상상력에 대한 기대감을 드높였던 <달의 저편>은 그 이후로도 단순히 지난 작품으로 머무르지 않고 지금까지 전세계 45개국에서 계속 공연되면서 르빠주의 대표적인 걸작으로 손꼽혀 왔다. <달의 저편>은 냉전 시기 러시아와 미국 간에 펼쳐졌던 치열한 우주개발 경쟁사와 이들 두 나라만큼이나 서로

다른 개성을 지닌 두 형제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아파트를 정리하며 갈등하고 충돌하는 이야기를 맞물리게 하여 유년기의 추억과 동시에 우주를 향한 인간의 꿈을 풀어내고 있다.

여러 배역을 능수능란하게 넘나드는 배우 이브 자끄(Yves Jacques)의 1인극으로 진행되는 이 작품에서는 무엇보다도 다층적인 이야기를 하나의 깊이 있는 메시지로 승화시키는 르빠주의 뛰어난 스토리텔링과, 창조적인 발상을 통해 단순한 무대와 일상적인 소품들을 전혀 색다른 공간과 사물로 탈바꿈시키는 마법 같은 연출력을 만끽할 수 있다. 지구 위 곳곳에서 서로 갈등과 충돌을 거듭하면서도 우주 너머의 공간과 미지의 존재를 탐색하고자 하는 인간들. 우주개발이 인간의 호기심이 아니라 나르시시즘에서 시작되었다는 화두를 던지며 시작하는 <달의 저편>은 우리로 하여금 마치 거울처럼 지구를 비춰주는 달을 마주하면서 자신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야를 깨우치도록 해줄 것이다.



"This is Lepage at his very best, showing his talent for forging unexpected connections and appealing simultaneously to hearts and minds." The Guardian

VIP 130,000
R 100,000
S 80,000
A 60,000
B 40,000

소요 시간: 115분 (휴식 20분 포함)
Duration: 115minutes
(including one 20 minutes interval)
관람 연령: 7세 이상
Age Guideline: 7+

5.23 wed-
5.27 sun
weekdays 8pm
weekend 2:30pm &
7pm

In a small town, all the children have mysteriously disappeared. Plucky “Hansel and Gretel” embark on an exciting adventure venturing deep into the enchanted forest to find their friends. This delightfully inventive “Hansel & Gretel” takes creative twists and turns inspired by the Grimm Brother’s famous fairy tale - and the stories and imagination of the people of Scotland. A carousel of delicious treats from start to finish, “Hansel & Gretel” is full to the brim with magic and wit; with toys that come to life and a beautiful, bewitching ballerina who is not at all as she seems. Scrumptiously surreal and with more than a sprinkle of festive magic - take an enchanting journey with Scottish Ballet this May.

가족과 연인을 위한 한 편의 꿈같은 발레극이 찾아온다. 로열 발레단, 잉글리쉬 내셔널 발레단, 버밍엄 로열 발레단과 더불어 영국을 대표하는 4대 발레단 중 하나인 스코틀랜드 국립발레단이 그림 형제의 동화를 바탕으로 한 <헨젤과 그레텔>을 한국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1959년에 설립되어 6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스코틀랜드 국립발레단은 클래식한 전통을 기초로 현대적인 작품까지 아우르며 우리 시대의 혁신적인 안무가들과 그들의 기념비적인 작품들을 끊임없이 선보여왔다. 이번 내한공연은 1992년 영국의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 왕세자비 부부의 방한과 함께 이루어졌던 첫 내한공연에 이어 무려 26년 만이다.

<헨젤과 그레텔>은 엔겔베르트 훔퍼딩크 (Engelbert Humperdinck)가 작곡한 동명의 유명한 오페라 음악 위에 발레단의 예술감독 크리스토퍼 햄슨(Christopher Hampson)이 감각적이면서도 위트 있게 안무를 입힌 작품이다. 감칠 맛 나는 현대적인

각색과 아름답고 화려한 무대 미술, 여기에 탄탄한 기량을 갖춘 스코틀랜드 국립발레단의 환상적인 앙상블에 힘입어 탄생한 이 작품은 이미 익숙한 이야기라는 선입견을 뒤집고 완전히 새롭고 더욱 신비롭게 탈바꿈되어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들 것이다.

아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마을. 부모님의 엄한 보호 아래 집 안에서만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며 서로 티격태격하는 남매 헨젤과 그레텔. 사라진 친구들을 찾으러 몰래 집을 빠져 나와 마법의 숲으로 들어간 이들 앞에는 흥미진진한 모험과 뜻밖의 만남이 펼쳐진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롤리팝과 색색깔의 달콤함이 가득한 과자의 집, 신비로운 요정과 무시무시한 까마귀들, 반짝반짝 날리는 별모래까지 마치 선물 상자를 열듯이 즐거움과 놀라움, 아름다움이 마법처럼 끊임없이 튀어나오는 <헨젤과 그레텔>은 함께 하는 이들 모두에게 넘치는 기쁨과 행복을 선사할 것이다.

SCOTTISH
BALLET



스코틀랜드 국립발레단 <헨젤과 그레텔> Scottish Ballet “Hansel and Gretel”

“장난스럽고 미술적인 매력이 톡톡 터진다.”

“Fizzing with mischief and magic.” The Telegraph

“우리의 손을 잡고 마법의 세계로 이끄는 작품”

“This production takes us by the hand and leads us into its magical world.” The Scottish Daily Express

R 80,000 S 60,000 A 40,000

비네타 사레이카(Vineta Sareika, Vn)
안티아 크레스톤(Anthea Kreston, Vn)
그레고르 지글(Gregor Sigl, Va)
에카르트 룬에(Eckart Runge, Vc)

PROGRAM

베토벤 현악4중주 제3번 D장조,
야나체크 현악4중주 제1번 '크로이처 소나타',
슈만 현악4중주 제3번 A장조

Beethoven: String Quartet No.3
Janáček: String Quartet No.1 "Kreutzer Sonata"
Schumann: String Quartet No.3

상기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6.5 tue
8pm

CLASSICAL MUSIC

아르테미스 콰르텟

Artemis Quartet

A German string quartet often praised to have brought fresh, young breeze into classical music, the Artemis Quartet is coming to Korea for the first time. Since its foundation in 1989, Artemis Quartet has grown steadily taking Alban Berg Quartet as its mentor. The Quartet was extolled with its Beethoven's String Quartet, even commented by *The Guardian* that "Beethoven is still the Artemis's calling card." Come and witness the Quartet's brilliance, performing for the first time in Korea with a program consisting of Beethoven, Janáček, and Schumann.

파벨 하스 콰르텟, 에벤 콰르텟, 벨체아 콰르텟 등 오늘날 클래식 음악계에 젊고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현악4중주단의 선두주자인 아르테미스 콰르텟이 처음으로 내한한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냥의 여신'의 이름을 차용한 아르테미스 콰르텟은 1989년에 뉘른베르크 음악대학에서 창단된 후 이제는 전설이 된 알반 베르크 콰르텟(Alban Berg Quartet)을 멘토로 삼아 꾸준히 발전하였고, 1996년 독일 뮌헨에서 열린 ARD 국제음악콩쿠르 1위, 프레미오 파올로 보르치아니 콩쿠르 1위를 연달아 수상하며 국제적으로 명성을 높였다.

2005년부터 버진 레이블(현 에라토)을 통해 음반을 발매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콰르텟은 이제까지 베토벤 현악4중주 전곡을 비롯하여 멘델스존, 브람스, 슈베르트, 피아졸라, 야나체크, 쇤베르크, 리게티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담아내면서 예고 클래식상, 독일음반비평가상, 그라모폰상, 황금 디아파종상 등

주요 음반상을 골고루 수상했다. 특히 가디언지가 "베토벤은 두말 할 필요 없는 아르테미스의 명함"이라고 평한 이들의 베토벤 현악4중주 연주는 2011년 전국 녹음으로 완성되었고, 이 음반은 그 해 프랑스의 권위 있는 음반상인 '샤를 크로 아카데미 그랑프리'상을 수상하는 등 돋보이는 성과를 일구어냈다.

6월 아르테미스 콰르텟의 첫 내한무대에서도 이들의 시그니처 레퍼토리인 베토벤 현악4중주 중 Op.18 No.3을 들을 수 있다. 여기에 "짚은 템포 변화에도 완벽에 가까운 응집력을 보여준 연주"라는 호평을 받은 야나체크의 "크로이처 소나타" 4중주와 이들이 최근 집중하고 있는 슈만의 현악4중주도 함께 연주될 예정이다. 고전적인 전통 위에 강한 추진력과 적절한 균형감으로 언제나 신선한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아르테미스 콰르텟. 이제 이들의 명성을 직접 확인할 차례다.



© Nikolaj Lund

“강렬한 첼로 선율을 바탕으로 모든 성부가 또렷하게 들리도록 세밀히 조율된 균형감... 일관되게 최상급 연주를 들려주는 앙상블. 이들의 연주는 위대함이 무엇인지 언제나 일깨워준다.”

“...consistently superb ensemble, grounded by a strong cello line and refined by an internal balance where every voice tells... You are always made aware of greatness.” Gramophone

“세계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현악4중주단”
 “The world’s most exciting string quartet.” Gramophone

“대단히 대범한 연주 - 파벨 하스 콰르텟은 스메타나의 교향곡적인 4중주 감각을 완벽히 잡아냈다.”
 “This is extraordinarily bold playing - and they truly capture the sense that Smetana is writing symphonic quartet music.” Gramophone

파벨 하스 콰르텟

Pavel Haas Quartet

6.8 fri
8pm

R 80,000 S 60,000 A 40,000

베로니카 야루스코바(Veronika Jarůšková, Vn)
 마렉 츠비벨(Marek Zwiebel, Vn)
 라짐 세드미둡스키(Radim Sedmidubský, Va)
 페테르 야루섹(Peter Jarůšek, Vc)

PROGRAM

스메타나 현악4중주 제1번 “나의 생애로부터”,
 쇼스타코비치 현악4중주 제2번
 Smetana: String Quartet No.1, “From My Life”
 Shostakovich: String Quartet No. 2, Op.68

상기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 Marco Borggreve

Receiving rave reviews and heated response from the press and audience alike after its first concert in Korea in 2015, Pavel Haas Quartet will make its way once more to Korea in June. One of the most prominent string quartets born in the heartland of chamber music, the Czech Republic, Pavel Haas Quartet was founded in 2002 causing a wild sensation in the international chamber music scene. It garnered major record prizes ever since, ranking as one of the greatest string quartets of our time. This time, the Quartet will perform works of Smetana, Czech Republic’s so-called father of music, as well as Shostakovich’s string quartet that reaffirms the close-knit ensemble of each musician’s distinctive sonorities.

“개성과 기교, 참신함까지 갖춘 21세기 현악4중주의 모범답안”(연하뉴스)이라는 찬사와 함께 국내 관객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받으며 2015년 첫 내한 무대를 성공적으로 장식했던 파벨 하스 콰르텟이 다시 한번 한국을 찾는다.

파벨 하스 콰르텟은 스메타나, 탈리히 콰르텟에 이어 ‘실내악 강국’ 체코가 낳은 걸출한 현악4중주단 중 하나로 2002년 세계 실내악계에 일대 파란을 일으키며 등장했다. 창단부터 지금까지 그라모폰상, 황금디아파종상, 미뎀 클래식 어워드, BBC 뮤직 어워드 등 굵직한 음반상들을 모두 휩쓸었는데, 특히 2015년 발매된 <스메타나 현악4중주> 음반은 그라모폰에서 “엄청나게 대단한 연주! 스메타나의 정신을 진실하게 담아냈다.”는 호평을 받으며, 그들이 체코 레퍼토리에 있어 가히 독보적인 존재임을 입증해 보였다. 새롭게 합류한 비올리스트 라짐 세드미둡스키와 이전 멤버였던 파벨 니콜까지 의기투합해 녹음한 최근 음반 <드보르작 현악5중주> 역시 발매 직후 BBC 뮤직 어워드 ‘이달의

음반’과 그라모폰 ‘에디터스 초이스’에 선정되면서 한층 높아진 평단과 관객들의 기대감을 만족시켰다. 이제 파벨 하스 콰르텟은 패기 넘치는 차세대 현악4중주단을 넘어 명실공히 우리 시대 실내악계를 이끌어나갈 위대한 현악4중주단의 반열에 올라섰음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지난 내한에서 독특한 앙상블과 남다른 작품 해석, 뛰어난 기교와 표현력을 바탕으로 체코 레퍼토리의 정수를 선보였던 파벨 하스 콰르텟은 이번 무대에서도 그 감동을 고스란히 이어간다. 1부에서는 지난 내한 앙코르로 짧게 선보였던 곡이자 체코 국민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스메타나의 현악4중주 제1번 “나의 생애로부터”를 연주하며, 2부에서는 쇼스타코비치 현악4중주 제2번을 통해 강렬한 개성을 보유한 연주자들이 만들어내는 긴밀한 앙상블을 선사할 예정이다. 파벨 하스 콰르텟의 눈부신 연주를 절대 놓치지 말자!

R 80,000
S 60,000
A 40,000

소요 시간: 160분 (휴식 없음)
Duration: 160minutes (no interval)
관람 연령: 19세 이상
Age Guideline: 19+

독일어로 공연되며, 한국어 자막이 제공됩니다.
Performed in German with Korean subtitles.

본 공연은 지연관객의 입장이 불가합니다.
Late comers will not be admitted.

THEATRE

6.14 thu-
6.17 sun
weekdays 8pm
sat 7pm, sun 3pm

Reimagining Shakespeare's rapidly ambitious king with a confrontational interpretation, Thomas Ostermeier returns to the LG Arts Center with "Richard III". Ostermeier is one of the world's most revered and provocative directors, renowned for drawing stage action and audiences closer together. He remains faithful to Shakespeare's original but presents "Richard III" as both a theatrical thriller and a celebration of evil. Lars Eidinger, a cult figure in German theatre, is mesmerizing, sometimes shocking Richard, damaged and disfigured, who murders his way to the throne and exposes the mistrust and conflict within the ruling elite. With ferocious live drumming and a stark stage design set in a mud-splattered arena, this visceral production brings the audience up close to Shakespeare's charismatic psychopath, darkly comic in his amoral ambitions.



토마스 오스터마이어 연출 〈리처드 3세〉

Schaubühne Berlin
"Richard III" by
Thomas Ostermeier

"절름발이 왕이 교황의 도시 아비뇽을 지배하다."

"A lame king reigns over the City of the popes." Le Monde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과 폭발력을 지닌 무대로 매 작품마다 놀라움을 선사했던 독일의 연출가 토마스 오스터마이어. 2016년 <민중의 적>을 통해 공연장을 불꽃 튀는 토론의 장으로, 관객들을 열정적인 논객으로 변신시켰던 그가 이번에는 관객들을 셰익스피어가 창조해낸 가장 야심차고 매력적인 악의 화신에게로 인도한다.

2015년 2월 베를린 초연 후 그 해 아비뇽 페스티벌과 2016년 에든버러 페스티벌에서 극찬을 받은 <리처드 3세>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을 거쳐 영국 요크 왕조의 마지막 왕좌를 차지한 리처드 3세를 다룬 셰익스피어의 초기작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권력을 향한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불구가 된 이 악인을 그려내기 위해 오스터마이어는 셰익스피어 시대를 연상시키는 반원형 무대를 세우고, 이를 꽃가루와 흙먼지가 흩날리는 무채색의 황량함으로 채워 핏빛 살육과 검은 모략의 현장을 더욱 강렬하게 부각시킨다.

무엇보다 압도적인 존재는 전작 <햄릿>에서 독특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햄릿을 그려냈던 배우 라르스 아이딩어(Lars Eidinger)가 분하는 주인공 '리처드 3세'다. 아이딩어는 곱사등에 절름발이인 리처드 3세의 흉측한 신체적 특징뿐만 아니라 왕좌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복잡해지는 심리 상태를 마치 신들린 듯한 연기력으로 표현해내며 이 작품을 한편의 드라마틱한 심리 스릴러로 승화시킨다. 간고함과 악랄함으로 무장한 채 주변 인물들을 조종하고 모략하는 '리처드 3세'는 역사와 희곡 속에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눈 앞에서 살아 움직이며 마치 자신의 악행을 정당화하고 설득시키려는 것처럼 사악한 숨결을 뿜어낸다. 무대와 객석 곳곳에서 등장하는 배우들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라이브로 연주되는 강한 비트의 드럼은 침예하게 펼쳐지는 정치적 대립과 술책에 마치 관객들마저 직접 개입되어 있더라도 한 듯 긴장감과 몰입감을 고조시킨다. 오스터마이어의 연출이 지닌 특유의 거친 에너지와 폭발력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다면 매력적인 광기로 가득한 드라마 <리처드 3세>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Supported by



"떠들썩하고, 고집 세고, 어리석고, 가끔은 멋졌다가 종종 좌절하는... 그야말로 포효하는 리처드다."

"Boisterous, wilful, ridiculous, occasionally brilliant, frequently frustrating, this is a roaring Richard." The Stage

VIP 100,000
R 80,000
S 60,000
A 40,000

소요 시간: 90분 (휴식 없음)
Duration: 90minutes (no interval)

7.5 thu—
7.8 sun
weekdays 8pm
sat 2pm & 7pm
sun 3pm

서크 엘루아즈 〈서커폴리스〉

“Cirkopolis” by Cirque Éloize

With “Cirkopolis,” Cirque Éloize takes their breathtaking blend of circus arts, theatre and dance to a highly-stylized metropolis setting where multidisciplinary artists rebel against monotony, reinvent themselves, and challenge the limits of the factory-city as only they can. Performing within an inventive stage design and accompanied by an original musical score and video projections, they live in a world where fantasy defies reality—the veil of anonymity and solitude is lifted and replaced by bursts of humour and colour. “Cirkopolis” transforms the 1927 classic sci-fi film “Metropolis” into a virtuosic circus spectacle for the whole family.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경험하게 될,
서커스의 모든 것!**

희색 도시를 배회하는 희색 사람들, 생기를 잃은 노동자들로 가득한 퀴퀴한 사무 공간에서 마법 같은 반란이 일어난다. <서커폴리스>는 독일 표현주의를 대표하는 프리츠 랑 감독의 1927년작 SF 영화 <메트로폴리스>의 배경을 한 순간에 아름답고 환상적인 판타지의 세계로 전복시킨다. 반란이 일어날수록 단조로움과 고독함의 베일은 견고하고 다채로운 컬러가 폭발한다. 유머와 시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빛나는 색채로 가득 찬 이 곳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경험하게 될 ‘서커폴리스’다.

서커스와 연극, 뮤지컬 풍의 음악과 댄스의 완벽한 조화 속에 고도의 테크닉을 구사하는 퍼포머들은 우리를 숨막히는 긴장감과 터져 나오는 웃음 그리고 환호 사이에서 종횡무진 달리게 만든다. “황홀하고, 드라마틱한, 녀를 빼놓는 꿈”(더 스테이지)과도 같은 이 한 편의 스펙터클은 몽환적인 음악과 영상을 가미한 감각적이고도 창의적인 연출을 통해 모든 연령의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초연 이후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2014년에는 매튜 본, <스노우쇼>의 슬라바 풀루닌, 태양의 서커스 등이 받은 바 있는 뉴욕 드라마 데스크 어워드를 수상하였으며, 지금까지 30여 개국, 100여 개 도시, 460회 이상을 공연하며 전 세계 35만 명의 관객에게 서커스의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2011년 아트 서커스 <레인> 이후 7년 만에 한국을 찾는 서크 엘루아즈는 새로운 서커스를 찾는 대중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서커스에 음악, 무용, 기술 그리고 연극적 요소를 결합하여 완성도 높은 작품들을 만들어오고 있다. 창단 이후 25년간 서커스의 예술적인 완성도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서크 엘루아즈, 그들이 쏟은 열정과 집념의 집합체인 이 작품은 뮤지컬에 익숙한 관객들마저 사로잡을만한 드라마틱한 서커스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할 것이다.

CIRQUE ÉLOIZE

“황홀하고, 드라마틱한, 그리고 깜짝 놀랄만한, 녀를 빼놓는 꿈이다!”

“Thrilling, dramatic, astonishing,
mesmerizing simply a dream.” The Stage

“모던 서커스의 향연”

“A feast of modern circus!” The Sydney Morning Herald

2017 러시 아워 콘서트,
고상지 '부에노스 아이레스 탱고 카페'



© LG Arts Center, JD Woo

러시 아워 콘서트 RUSH HOUR CONCERT

꼭 막힌 당신의 마음을 뺏아주는 짜릿한 음악 여행!
Escape the chaotic rush hour traffic, and enjoy a concert instead!

3.23 fri 7pm

곽윤찬 재즈 트리오
with 양파 (guest)

KWAK Yoonchan's Jazz Trio
with Yangpa(guest)

4.3 tue 7pm

두번째달 with
소리꾼 김준수

2ndMOON with KIM Junsoo

7.10 tue 7pm

김반장과 윈디시티
KIM Banjang & Windycity

R 30,000
S 20,000
A 10,000

티켓 오픈
1.18 thu 10am

복잡한 퇴근 시간, 러시 아워를 피해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는 공연 한 편!
러시 아워 콘서트가 2018년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관객들을 찾아온다.

정상급 피아니스트 곽윤찬이 이끄는 재즈 트리오와 보컬리스트 양파의 공연부터 시작해, 에스닉 퓨전 밴드 '두번째 달'과 젊은 판소리꾼 김준수의 콜라보레이션 콘서트, 레게와 소울을 넘나드는 '김반장과 윈디시티'의 흥겨운 무대까지. 탁월한 음악성과 독보적인 개성을 가진 국내 뮤지션들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시간이 펼쳐진다. 더욱 강력해진 라인업으로 찾아온 러시 아워 콘서트와 함께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려보내고 음악의 바다에 풍덩 빠져보자.

In 2018, the Rush Hour Concert will continue to offer its fans upgraded programs. The program will start off with the Jazz Trio led by the top class jazz pianist KWAK Yoonchan performing together with the guest vocalist Yangpa. A collaborative concert of the ethnic fusion band '2ndMoon' and a young Pansori singer KIM Junsoo will follow. Meet the exuberant stage of 'KIM Banjang & Windycity' crossing over reggae and soul. The program will present an opportunity to meet the essence of Korean musicians, full of musical excellency and extraordinary character. Jump into the sea of music, let off your stress from everyday life and enjoy the Rush Hour Concert now back with a more powerful line-up.

아티스트와 관객이 만나는
LG아트센터
'관객참여프로그램'

LAMP

LG Arts Center
Meets People

LG아트센터는 활발한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내외 정상급 아티스트의 예술 세계와 창의력을 관객과 공유하는 관객참여프로그램 LAMP(LG Arts Center Meets People)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LG아트센터가 엄선한 기획공연 CoMPAS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LAMP는 아티스트의 창작 과정을 공유하는 만남의 시간, 직접 체험해보는 워크숍 그리고 공연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연 등 다양한 형태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도 LAMP는 관객 여러분께 예술과 예술가를 통한 다양한 자극과 경험의 시간을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객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피나 바우쉬 무용단의 헤지나 애드벤토, 다피니스 코키노스
<스위트 맘보> 관객과의 대화, 2017



토널그룹 암스테르담의 배우 램지 나스르, 연출가 이보 반 호브,
배우 바트 슬레거스
<파운틴헤드> 관객과의 대화, 2017



안무가 웨인 맥그리거
<아토모스> 관객과의 대화, 2017



연출가 고선웅, 배우 김소진, 오지호, 조영규
<라빠르트팅> 관객과의 대화, 2017

CoMPAS18 Discount Information

Ticket sales for each program will begin
at 10am on Thursday, 11 Jan.

Reserve early and save money!

Early Bird Discount

Thu, 11 Jan ~ Fri, 9 Feb

- Receive a discount of 15% on each performance, available until 9 February 2018.

Discount for small gatherings,
great discounts to be had!

Get-together Discount

Thu, 11 Jan ~ until the quota is reached

- 25% discount is offered for a group of 4 or more people who purchase the same grade for the following programs (The first 100 seats per performance): "Electra" directed by HAN Tae-sook, Scottish Ballet "Hansel and Gretel" and "Cirkopolis" by Cirque Éloize

It's wonderful to be young!

Youth Discount

Thu, 11 Jan ~ until the ending date for each program sales

- Discounted tickets available for those born after 1 January 1995.
- 30% off for A and B seats / 20% off for VIP, R and S seats
- Please bring your identification card with you when collecting your ticket (If not, you will be charged for the difference on site.)

Special Choice of Shinhan Card

Shinhan Card Art Collections Discount

Thu, 11 Jan ~ until the quota is reached

- Get a 20% discount for 'Art Collections' programs by paying with the Shinhan card. (The first 200 seats per program)
- * Apply to following programs: "Bosch Dreams", "The Far Side of the Moon", "Hansel and Gretel", "Richard III" and "Cirkopolis"

Exclusive discount for Shinhan card holders

Shinhan Card Discount

Thu, 11 Jan ~ until the ending date for each program sales

- Get a 10% discount for every program by paying with the Shinhan card.

로베르 르빠주 연출
<달의 자판>
Robert Lepage &
Ex Machina
"The Far Side of the Moon"



CoMPAS18 Program Packages

Ticket sales for
packaged programs
will begin at
**10am on Thursday,
4 January 2018**

For inquiries on package
purchases, please contact us by

- Box Office: Weekdays 9am-6pm (Closed on weekends and national holidays)
- Tel: +82(2) 2005-0114
- E-mail: arts2005@lgart.com

Package Information

- Package purchasers will receive a special package card.
- Package purchasers can get individual tickets at a 20% discount for up to two guests that accompany them to each individual program of the package.
(Tickets available after 10:00 on 11 January)
- Package tickets can be purchased by phone or by visiting our box office.
- The seats purchased must be of the same grade for all programs comprising the package. In the case of R seats package, you can upgrade your seat to VIP.
- Cancellation and modification of the package are not accepted once the first performance of the package has been staged. However, you may change the performance dates provided that the subject tickets pertain to the same show.

The Free Choice Package

The seats purchased must be of the same grade for all CoMPAS18 programs selected. Three types of price packages are available based on the seat grades. If you purchase the R-Package, you will be eligible to upgrade your seat to VIP where applicable. You may not select a certain program more than once to make up the 10, 7 or 5 program package.

* Please make sure to check the age available for each performance.

40% savings on 10 or more programs selected:
Until Fri, 30 March

25% savings on 7 or more programs selected:
Until Wed, 25 April

15% savings on 5 or more programs selected:
Until Tue, 22 May

Oh! Canada Package

Until Thu, 5 April

If you select all 3 Canadian artists' programs, you will get a 15% discount on all grades. The first 50 purchases will receive a special souvenir set from the Canadian Embassy.

6-8 April	The 7 Fingers x Republique "Bosch Dreams"
16-19 May	Robert Lepage & Ex Machina "The Far Side of the Moon"
5-8 July	"Cirkopolis" by Cirque Éloize

VIP* + R 260,000 → **221,000**
R 240,000 → **204,000**
S 180,000 → **153,000**
A 120,000 → **102,000**

* VIP grade for "Cirkopolis"

* Sponsored by

Canada Embassy of Canada in Korea

The Doubles Package

Until Wed, 28 March

40% savings on all 7 theatre, dance and circus programs below

* Please note that this package includes performance available for adults only.

29-31 March	"Swan Lake/Loch na hEala" by Michael Keegan-Dolan
6-8 April	The 7 Fingers x Republique "Bosch Dreams"
26 April-5 May	"Electra" directed by HAN Tae-sook
16-19 May	Robert Lepage & Ex Machina "The Far Side of the Moon"
23-27 May	Scottish Ballet "Hansel and Gretel"
14-17 June	"Richard III" by Thomas Ostermeier
5-8 July	"Cirkopolis" by Cirque Éloize

VIP* + R 605,000 → **363,000**
R 555,000 → **333,000**
S 415,000 → **249,000**
A 295,000 → **177,000**

* VIP grades for Scottish Ballet "Hansel and Gretel" and "Cirkopolis" by Cirque Éloize.



© Marco Borggreve

파벨 하스 콰르텟
Pavel Haas Quartet

The Classical Music Package

Until Wed, 14 March

25% savings on all 4 classical music programs below

15 March	Danielle de Niese & Lucerne Festival Strings
17 April	Magdalena Kožená & La Cetra Barockorchester
5 June	Artemis Quartet
8 June	Pavel Haas Quartet

VIP* + R 420,000 → **315,000**
R 360,000 → **270,000**
S 260,000 → **195,000**
A 160,000 → **120,000**

* VIP grades for 'Danielle de Niese', 'Magdalena Kožená'.

String Quartet Package

Until Mon, 4 June

20% savings on all 2 string quartet programs below

5 June	Artemis Quartet
8 June	Pavel Haas Quartet

R 160,000 → **128,000**
S 120,000 → **96,000**
A 80,000 → **64,000**

LG아트센터 회원이 되면 좋은 점!

01

예매 수수료가 없다!

LG아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하면,
티켓 예매 수수료가 전혀 없습니다.

02

예매에서 취소, 좌석 변경까지 편리하다!

LG아트센터 회원이 되시면,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티켓의 예매/취소/변경을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03

가입비, 연회비 없고, 실속은 아트포인트로!

기획공연 티켓 예매 시 구매 가격의 5%에 해당하는
아트포인트를 적립해 드립니다.
(10% 초과 할인 구매 시 포인트 적립 불가)
아트포인트는 기획공연 티켓 할인 및 주차우대권 교환 등
원하는 서비스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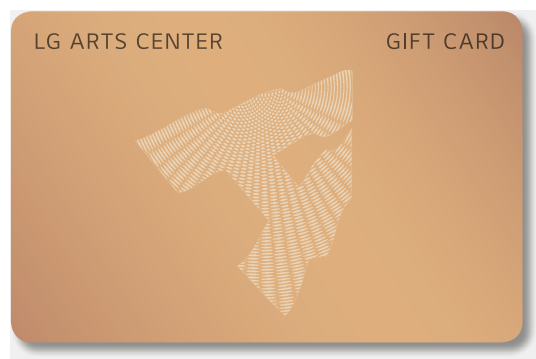
04

아티스트와 공연에 대한 고급 정보를 뉴스레터로!

LG아트센터가 전해드리는 소식을 제일 먼저 받아보세요.
기획공연에서 만나게 될 아티스트와 공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담긴 Azine(에이진)을 읽으시면, 관람의 깊이와
기쁨이 커집니다.

LG아트센터의 독창적인 예술 경험을 선물하세요!

LG아트센터 기프트 카드



종류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사용 방법

- LG아트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 예매 시 사용
(모바일 및 타 예매처 사용 불가)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기프트 카드 뒷면의
인증번호 인증 (최초 1회)
- 관람을 원하는 기획공연 선택 후,
'결제수단 선택' 단계에서
'예매권/쿠폰/상품권' 탭 선택하여 결제
- 유효기간 만료 후 사용 불가 (미사용 금액 소멸)

구매 및 사용 문의

LG아트센터 대표소 02-2005-0114

오직 LG아트센터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감동,
LG아트센터 기획공연의 가치를 선물하세요.

제휴 레스토랑 할인 안내

LG아트센터 당일 티켓 또는 예매확인서를 소지하시고
해당 레스토랑을 방문하시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드립니다.
단, 각 레스토랑의 사정에 따라 사전고지 없이 할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복할인은 불가하며, 해당 지점에서만 할인됩니다.)



메인 로비 카페

당일 티켓 소지 관람객 10% 할인



RESTAURANT (가나다순)

강가 (인도식 커리)

02-2005-0610
11:30-15:00 / 17:30-22:00 /
일 17:00-21:30
세트메뉴 10% 할인
(티켓 1매 당 1세트)

만면회색 (한국식면/샐러드/튀김)

02-562-5382
11:00-22:00 (주문마감 21시)
치즈어묵고로케 1개 무료
(티켓 1매당 1개)

머큐어 앰배서더 강남 쏘도베

(호텔 뷔페 레스토랑)
02-2050-6034
11:30-14:30,
뷔페 10% 할인

보나베띠

(이탈리안 레스토랑 & 와인 바)
02-569-8253
11:30-23:00 (일요일 휴무)
일주일 이내 입장권 또는
예매 확인서 소지 시
평일 10%, 토요일 20% 할인

분짜라뽀

(베트남 하노이식 분짜 & 쌀국수)
02-567-5379
11:30-22:00
전 메뉴 10% 할인(평일 점심 제외)

싱카이 (중식당)

02-2005-1003-4
평일 11:30-14:30 / 17:30-22:00
주말 12:00-21:00
식사 금액 10% 할인

오키포키 (퓨전 일식)

02-562-6600
평일 11:30-23:00 / 일요일 휴무
전 메뉴 금액 10% 할인
(평일 점심 및 주류 제외)

와인주막차차 역삼점

(와인 & 한식)
02-554-0722
평일 11:00-01:00,
토 17:30-01:00 / 일요일 휴무

지아니스 나폴리

(이탈리안 비스트로 & 화덕 피자)
02-566-0501
11:30-22:30
지아니스 시저 샐러드 제공

